

영국 국방 우선 사항 검토

영국 노동당 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요구 사항에 대한 초당(超黨)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조지 로버트슨 국방 장관은 이번 검토가 단순한 비용 삭감 노력이 아님을 밝혔으며, 지난 수년간에 걸쳐 국방 예산이 30%나 감소된 점을 지적하며 현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일정한 지출이 증가할 것임을 지적했다. '우리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를 알아내야만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검토 사업이 국제 테러리스트, 마약 중개상, 정보전, 화학 및 핵 위협과 같이 새로이 증가하고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에 완료될 이번 검토는 3단계로 이루어질 것인데 제1단계는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고 최우선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무

부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제2단계는 임무와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최종적인 부분은 인원과 시설 요구 사항에 대한 재편성이 될 것이다.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로버트슨은 정부는 네 번째 Trident 잠수함을 제작하고 동 잠수함의 독자적 핵 억제력을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로파이터 2000 또한 새로운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오히려 생산 투자 단계에서 독일의 자금 지원 능력의 부족으로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NATO 협력에 동의

NATO와 러시아는 동맹국간의 문제에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약에 서명했다. 이것은 유럽의 단결 및 서방과 러시아의 협력을 겨냥한 것이다. 21세기에 유럽-대서양 국가들의

평화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NATO의 국가 수반들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합동 안보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파리에 모였다.

냉전 시대의 적이었던 이들은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호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전역(戰域, theater) : 미사일 방어 및 방공에서의 협력 가능성.

▶모든 핵 안전 사안 : 이 사항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금전적 그리고 정치적 의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방의 핵 분석가들은 혼들리고 있는 러시아의 군/민간 핵 복합 단지를 도난, 폭괴, 사고 등 테러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BAe 7억 달러 호크기 주문 획득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BAe)는 지난 6월 22일 호주가 동 사의 호크(Hawk)기 30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7



영국에서 유로파이터 2000은 여전히 최우선 사업으로 232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억 달러가 넘는 주문이다.

영국의 국방 장관 조지 로버트슨은 호주가 공군의 lead-in 전투기로 호크기를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이 영국과 호주 산업계가 새로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다. BAe사는 지난 11월 동 주문에 대한 선취권이 있는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동 사는 영국에서 조립될 12대의 항공기를 위해 북 잉글랜드의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21대는 호주에서 제작된다.

美 의회 2682억 달러 국방예산 승인

미 하원은 새로운 B-2 스텔스 폭격기 추가 구입과 98년 6월로 예정된 미국 지상군의 보스니아 철수 일자에 대한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 2,682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별 무리 없이 승인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 예산안은 클린턴이 요구한 것보다는 66억 달러가 많은 것이며 97년 예산보다는 3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하원은 추가로 9대의 스텔스 폭격기 B-2를 구매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며 불필요한

조치라는 국방 장관 윌리엄 코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산 재개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B-2 생산 개시안은 B-2의 추가 구매를 거부하는 상원의 입장에 따라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코헨과 국방부는 “B-2의 추가 생산에 따른 비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이 자금이 군수 산업계의 생산 능력을 유지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며 필요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각형 모양에 검은 색의 이 폭격기는 노후된 B-1을 교체하기 위해 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국방부는 총 21대를 구매했다.

또한 하원의 이번 예산안은 군 시설로부터의 유독 폐기물 처리 비용 26억 달러를 무기 구매 비용으로 돌려 버렸다. 이밖에 하원은 공군의 F-22 전투기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 대통령이 요구한 21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12대의 F/A-18E와 F를 위한 13억 달러의 비용도 책정되었다.

NATO 예상 가입국, 고가의 신형 무기 구입 주저

새로운 대형 무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서방의 무기 메이커들은 현재 잠재적 NATO 회

원국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7월에 열리는 마드리드 NATO 정상 회담에 초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나라들은 이전 까지는 공산주의 국가들로 고가의 제트 전투기보다는 재정적 안정과 구매자 중심의 거래에 우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NATO의 압력으로 인해 몇 년 이내에 고가의 무기 계약을 맺게 될 전망이다. 미국 항공 우주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새로운 시장의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군용기 구매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총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이 오는 마드리드 회의에 첫 번째 그룹으로 초대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를 추가로 염두에 두고는 있으나,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 그룹으로 초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등 국가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중부 유럽을 순회해 오고 있는 중이다.